

GRACE 선교소식

2026년 2월 GMI-GKC 선교사 현황: 61개국 299명 (자체파송 79%)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땅끝까지!

GMI 총재 한기홍 목사

저는 이번 주간 우리 교단 신학교인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봄학기 개강 부흥회를 인도하며 이 편지를 씁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는 주정부의 인가를 받은 학교로, ATS(북미 신학대학원 협의회), ABHE(북미 성서-신학대학교 협의회), TRACS(기독교 대학 협의회) 정회원으로 가입된 공신력 있는 신학교입니다.

학사부터 박사 과정까지 정규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미국 내 편입과 진학도 가능한 모든 요건을 갖춘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1995년 은혜한인교회(당시 김광신 목사님)에 의해 설립되어,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지성·영성·인성을 겸비한 사역자를 세

워 열방을 복음화한다는 목적 아래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현 총장 최규남 목사님을 중심으로, 신학적 전문성과 함께 미국 내 정식 인가 기관으로서 높은 수준의 교육 과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사장으로서, GMI가 가지고 있는 선교 DNA가 학교 운영 전반에 깊이 스며들어 현장 중심의 선교사와 사역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며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강 부흥회를 인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역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모든 사역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의 신학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에 머물지 않습니다. 은혜한인교회가 소중히 여겨 온 뜨거운 기도 훈련과 영적 야성이 학업 속에 체득되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번 개강 부흥회에는 총장님을 비롯해 교수님들, 교직원들, 그리고 전 세계 각지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한 학생들까지 함께 모여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한기홍 목사님 사역일정

- 교역자 및 그룹장 모임: 2/10(화)
- 성도양육과정 시작: 2/11(수)
- 예손모임: 2/12(목)
- 목자 부흥의 밤: 2/24(화)

목사님의 사역 일정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회를 인도하며 저는 우리 교회와 GMU가 더욱 긴밀히 연합하여 앞으로 세계 선교에서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말씀을 전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키르기스스탄

강형민 / 숙진 선교사

2025년을 주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고 2026년 새로운 해를 맞아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따라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건물과 토지에 대한 법정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와의 재판이라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패한 이후 항소심에서 저희가 이겨 결국 재판은 1심으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새로 다시 시작되는 재판이라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저희 교회 건물이 설계가 정부 유치원으로 설계된 것이라 다시 정부 소유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저희는 1995년 이

미 기초공사만 되어있던 건물을 매각하라는 정부의 명령에 따라 판매된 건물을 합법적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어필하며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의 재판은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는 재판이라 말하고 있지만 저희는 기도하며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영국 알파 본부와 함께 중앙아시아에 알파코스를 통한 복음전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어른 알파 7기를 비롯해 청년 알파, 청소년 알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취켄 시내 여러 교회들이 저희와 함께 알파를 하고 있으면 많은 교회들이 알파를 통해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허브교회로써 중앙아시아에 알파를 하는 교회들을 돕고 있으며 2033년까지 중앙아시아에 1000개의 알파



코스를 통한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5월 25-26일 중앙아시아 5개국이 참여하는 알파 컨퍼런스를 저희 교회에서 실시합니다.

새로운 교회 개척을 위한 기반

건물이 없는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전 성도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셀을 오픈하고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도들의 사업처에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C국

조OO / 윤OO 선교사

지난 수개월 많은 공을 들여 취업비자를 취득하였는데 거주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약간의 제동이 걸렸습니다. 최소 1년 이상의 거주허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일단 3개월이 나왔고, 담당 기관에 문의하니 향후 비즈니스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는지 지켜본 후에 장기 거주허가를 줄 것인지 결정하겠다고며 통보해 왔습니다. 낙

심한 마음을 얼른 추스리고 현재는 새로 시작한 이 사업이 속히 안정되고 복의 통로로서 선하게 쓰임받도록 집중할 예정입니다.

BAM은 Business와 함께 다른 중요한 영역 (M) 모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한 쪽만 치우치면 특히 이곳에서는 머지않아 둘 다 지켜내기가 어려워 집니다. 비즈니스의 안정적 운영과 함께 선한 사업들이 꾸준히 일어나도록 계속해서 응원 부탁드립니다.

최대의 명절인 설날(춘절)을 앞두고 이곳 역시 벌써 조금씩 술렁이는 분위기입니다. 아무쪼록



2026년에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강력한 평강과 희망 가운데 강건하시고 승리하시길 손 모아 기원드립니다.

P국

이OO / 장OO 선교사

살롬으로 문안드립니다.

새해의 시작과 함께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동역자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시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앞으로의 사역과 비자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지 대학과의 만남과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현재는 MOU를 중심으로 협력이 구체화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고 계심을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잘 성사될 경우, 현지 사역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확장될 수 있는 발판이 될 가능성도 열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월 중 현지를 먼저 방문하여 대학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

며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장의 필요와 장기적인 사역 준비를 위해 온라인 수업으로 목회학 석사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현지 교회와 다음 세대 사역을 더욱 잘 섬기기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 기도하며 감당하고자 합니다. 파송 일정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리되어 4월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파송을 위한 준비가 순적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M국

곽OO / 엄OO 선교사



M국 피난민 정착지 예수마을 스토리

주변 마을에서 예배에 참석하며 떡과 복음으로 양육해가고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한 청년들이 Beauty Training 기본 기초 과정을 마치고 4월까지 봉사 훈련을 한 후, 전문 미용사 훈련과정을 위한 유학을(5월) 앞두고 있습니다.

아웅반 개척선교스토리

물이 부족한 마을 가정들에게 매일 선교센터에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성경 스토리를 처음 접하는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임하게 하는 성경퀴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신발들을 바라보며 개척선교사역의 보람을 느낍니다.

방과후 학교

사랑이 모아져서 아이들이 잘 자라가고 있습니다.



파나마

김재한 / 그레이스 김 선교사

1월 첫 주 파나마한인교회 단기선교팀이 오셔서 어린이들을 위한 VBS사역을(4년째) 마치고 저는 지금 미국 플로리다 은혜한인교회 선교관에 머물고 있습니다. 매년 1월은 이곳에 머물며 건강검진과 치료 그리고 심을 통해 새롭게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2026년도 1월이 벌써 중순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새해 인사를 드리며 2025년 주님의 축복과 선교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물질로 많은 열매를 맺히는 한해였음을 감사드립니다.

2025년 하반기 파나마 다리엔갭지역 선교소식

6월 27-7월 15일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6개 정글교회에 십자가를 설치하기 위해 11월에 방문하는 나눔선교회를 찾아 미리 자재들을 보내고 올해 하반기 파나마 다리엔을 방문하는 교회들을 방문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7월 16- 20일 한국 아모기업에서 이윤제 상무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강물을 마시는 정글 인디안어린이들이 매년 설사 등으로 고생을 하는데 아모기업에서 특별히 선교지들을 위해 제작한 정수기를 공급해 오셨는데 이 윤제상무님이 직접 방문해 정글마을에 설치된 정수기물의 오염도를 체크하며 점검해 주셨습니다.



8월 1-7일 한국 삼일교회에서 청년다기선교팀이 방문해 정글 초등학교들을 방문해 VBS를 통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곳 초등 공립학교에서는 우리 선교팀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전 학생들을 맡깁니다.

8월 16-23일 뉴저지 베다니교회 학생들이 단기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이곳은 미국, 한국 등 청소년학생들이 방문하면 많은 은혜

와 도전을 받고 돌아갑니다. 가까운 미국에서와 정글과 인디언들의 삶을 경험하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고 돌아갑니다. 미국과 한국에서의 풍부한 삶 속에 살다 잠시나마 이곳 삶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축복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9월 1-10일 은혜한인교회 23그룹에서 방문해 정글 여러 마을들을 돌며 복음을 전하고 어린이들에게는 VBS를 통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23그룹선교팀들과 처음으로 파나마 동쪽 마지막 마을(산하나 넘어 콜롬비아)인 바란끼좌마을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곳 어린이들은 외부에서 사람들이 방문하면 산을 넘어가 콜롬비아 사람(?)에게 신고를 한다고 하여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 마을에도 교회가 세워질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월 19일은 미국 뉴저지 베다니교회(선교사 공동파송) 창립 40주년 창립예배 및 선교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지난 40년을 함께하시고 지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1주일간 열리는 기간에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누며 선교사님, 목사님들과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베다니교회의 어려움 속에서 부임하신 백승린목사님의 헌신적인 목회로 교회가 안정되고 성장된 모습에 그동안 기도로 함께 한 선교사의 마음이 기뻐했습니다.

11월 25일-12월 2일 한국에서 나눔 선교회 십자가와 태양광 전기 설치팀이 방문해 전기가 없는 3개 교회에 태양광 시스템으로 교회에 불을 밝히고 십자가를 설치했습니다. 전기가 있는 3개 교회에는 십자가를 설치하였습니다. 정글의 어두운 밤에 교회의 불은 십자가에 불이 켜질 때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성도들은 물론 마을 사람들도 함께 참여해 축복해 주었습니다. 십자가 설치를 위해 한국 미국 브라질 등에서 오신 목사님들의 연세가 모두 65세가 넘으신 분들로 뜨거운 교회 지붕 위에 올라가 작업하시는 모습에 선교사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중남미에 10,000개 교회에 십자가가 설치되길 기도합니다.

12월 11일 드디어 그동안 기도해 오던 체육관(GYM) 기구들을 실은 2개의 컨테이너가 도착했습니다. 삼일교회에서 파송된 신용길 선교사님이 이곳에 체육관(GYM)을 오픈해 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예정입니다.



12월 16-18일 볼리비아에 최성일선교사님이 방문해 청소년 집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는 집회에 최선교사님의 유창한 스페니쉬로 많은 청소년들에게 도전을 주고 새롭게 헌신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성령님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4-6일 파나마 한인교회에 성도님들이 방문해 이곳 4개 교회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VBS를 통해 영적 성장을 도왔습니다. 매년 첫 주에(4년째)이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매년 같은 어린이들을 초대해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 주에 행하는 사역이지만 저에게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사역입니다.

바쁜 연말 사역들, 매달 마지막 주에 열리는 신학교 사역, 정글 인디안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건축공사, 그리고 각 교회들을 방문 및 새롭게 개척을 준비하는 Yape마을과 Barenquilla마을 등 2025년 하반기에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콜롬비아로 향하는 펜아메리카연장 도로도 2026년에 1차 공사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물론 이번 1차공사에는 콜롬비아까지 뚫리지는 않지만 5년 안에는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연장 도로가 완공되면 그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많은 정글 인디안마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또한 정글 안에 기도하며 준비중인 Senior Living Village 및 종합선교센터 공사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동역할 동역자들, 기도의 동역자들, 물질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2026년에도 이곳 파나마 다리엔 갭 정글 인디안 영혼 구원을 위해 계속해서 선교의 동역자님들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

기OO 선교사

2025년 12월 성탄 예배 및 사역

K마을은 말랑에서 가장 큰 I교 공동묘지 너머에 있는 M마을입니다. 이 공동묘지는 말랑지역에 I교 기숙학교 창시자의 묘가 있어 종교 순례지의 한 곳이기도 합니다. 공동묘지에 가려 보이지 않는 K마을에서 사역하던 사역자가 떠나며 몇 년 동안 마을의 몇몇 기독교인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예배/공동체 모임 등을 떠나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을 품고 믿는 사람들의 영적 성장을 바라는 마을 주민이 현지 사역자에게 요청하여 아이들을 대상으로 **12월 14일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직전에 있던 I교 기숙학교 창시자의 죽음을 기리는 행사에 참석한 아이들도 예수님에 대한 인형극을 보고 말씀 암송, 찬양을 올려 드렸습니다. 비록 어떤 아이들은 예배보다는 하나의 행사로 참석하였을 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심겨지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도 늦게 와서 집중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음도 감사하였습니다. 공동체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사역을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섬김의 경험이 이후 학생들이 있는 어디서든 사역의 확장이 일어나는 자양분이 시간이 되었음도 감사합니다.



아이들 사역 이후 마을 여성분들을 위한 성탄 예배도 원하셨는데 성탄 특별 헌금으로 심겨주신 분으로 인하여 **2026년 1월 5일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의미와 하신 일에 대한 말씀을 전하였는데 감사하게도 타종교분들도 외국인이 전하는 인도네시아어 설교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먼저 시작된 공동체 모임도 월2회 모이고 있는데 믿는 분들이 말씀으로 변하여 사랑과 섬김으로 믿음의 분이 되어, K마을 분들에게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자라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열매를 맺

을 수 있는 때를 기대합니다.

12월 12, 16, 17일 후원하는 학생들의 가정을 방문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교회와 개인을 통하여 19명의 학생들을 계속해서 섬길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3년째 후원 학생들 가족을 연말에 방문하였는데 처음으로 비가 오지 않았음도 감사합니다.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며 그 사랑을 이웃과 친구들에게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셀라와 루이스 어머니는 12월 18일 자궁적출 수술을 무사히 마치셨습니다. 수술과 회복 과정을 통하여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계심이 감사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바탐 지역의 현지 사역자와 2025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사역이 종료되어 후원하는 학생들과의 후원도 종료되었습니다. 학생들의 학업과 가정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이 계속되기를 기도합니다.

12월 19일 M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현지사역자의 공부방에서 연말을 기념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메시지를 전할 수는 없었지만 게임을 진행하며 기독교인들이 성탄을 기념하는 이유를 전하였습니다. 사랑으로 가르치고 섬기는 현지사역자의 모습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학생들과 부모님께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12월 20, 25, 28일 세 곳의 교회에서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곳은 공동체 모임은 있었으나 2025년 하반기, 2025년 성탄 예배를 기점으로 교회로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기에 더욱 감사하였습니다. SOG 성탄 예배는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준비하고 예수님 탄생의 말씀으로 연극을 올려드렸는데 이전에 소리지르고 일반적인 축제와 다름없이 보냈던 지난 예배를 생각하니 감사가 배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날마다 저희를 새롭게 하며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은혜의 메시지가 됨이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사역 소식

2026년 1월 4일, 바투에서 공동체로 모이던 청



소년과 가정을 중심으로 정식적인 교회로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투 지역을 섬기던 현지 사역자가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때에 따라 교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확정된 장소나 많은 성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예배 드림에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현지 사역자가 바투 곳곳을 다니며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역 가운데 더 많은 분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후원 학생들 양육을 위해 각 가정별로 월 2회 모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직접 참여하지 못하였지만 2026년 부터 매주 2회 현지 사역자와 팀이 되어 후원 학생들 가정을 방문하여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 1월 11일 새해 첫 부모기도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각 가정별로 기도, 나눔, 말씀 읽기 등 부모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실천적인 활동을 하며 부모님들이 믿음과 삶의 모범을 보이기를 약속하였습니다.

기숙사 학생들과 2026년 성경 개관을 공부하는 모임을 주 1회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방학을 맞은 학생들과 개별 만남을 통해 신앙과 삶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5일 온라인 성경통독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년보다 참여하는 학생 수가 줄었지만 15-20여명의 학생들이 매일 통독하며 나눔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역 2곳에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곳은 한국 선생님이 하시는 공부방이고 다른 한 곳은 현지 사역자가 I교의 사립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M학생들이 다수인 곳인데 2026년에는 보다 많은 시간과 만남을 M에게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교육을 매개로 M들과의 관계 확장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케냐

황광식 / 원지혜 선교사

케냐는 1월 첫 주부터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 되어 바쁘게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작년 10월 말에 치른 6학년 국가고사는 1월 중순이 되어 서야 결과가 나왔는데 모두 좋은 성적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새학기가 시작 하자마자 공립학교에서 교사들을 뽑아 가는 바람에 필요한 교사들을 급하게 충원해야 했습니다. 올해는 중학교 3개 학년이 다 채워져서 중학교만 백여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고, 유치원부터 중 3까지 49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분리 하여 중학교를 잘 세워나가면서 고등학교 교실을 건축하고 내년에 시작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는 것이 올해의 계획입니다. 이 아이들 중에 실력 있는 크리스천 지도자들

이 많이 나와 케냐뿐 아니라 주변의 아프리카 나라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기도해주세요.

1월 3~4주에 올해 처음 신학교 학기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울릉양문교회 원용국 목사님께서 방문하셔서 요한복음을 강의해주셨습니다. 신학생들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사역의 비전과 복음의 열정으로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올 한해도 신학생들의 가정과 사역이 크게 부흥하여 세계선교 마무리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감사한 것은, 작년에 울릉서문교회를 통하여 케냐에 7개의 교회가 건축되고 95m나 되는 우물을 팅었는데 헌당예배를 위해 담임목사님과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목사님 가정에서,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가정에서, 교회 전체 성도님들이 힘을 모아 한 교회에서 무려 7개의 교회와 우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저희도 작년처럼 교회 건축을 많이 한 적이



없었습니다. 마라파 세 군데, 팔레 네 군데 헌당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팔레 지역은 물이 정말 귀한 곳입니다. 우리가 손을 씻기에도 깨끗해 보이지 않는 밀크커피색의 물을 사람들은 그냥 마십니다. 그곳에 95m 깊이의 우물을 파고 깨끗하고 시원한 지하수가 흘러나오니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해하는지, 수 백명의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동네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물이 복음의 통로로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 깨끗한 물도 마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건축이 올해도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기도해주세요.

인도 선교 사역 소식 -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의 발자취 -

우리 은혜한인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지난 여러 해 동안 인도 땅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모든 여정은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신 은혜의 역사임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감사의 소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2008년부터 은혜한인교회 단기선교 팀이 16개의 주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였고, 그 결과 신학교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학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열매를 허락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총 166명의 신학생이 졸업하였고, 그중 84명이 현지 사역자로 헌신하여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총 240개의 개척교회가 세워지며, 총 58개의 교회가 완공되었습니다.

2025년에만도 29개의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열매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가능했습니다. 2016년 8월, 인도 오리사 지역 선교를 시작한 이후 2018년 10월 본격적인 사역으로 확장되었고, 그동안 **15개의 주요 부족 지역(Main Tribal)**을 방문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150여 개의 현지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다음 사역을 바라보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직 복음을 기다리는 많은 영혼들이 있고, 세워져야 할 교회들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도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이 끊이지 않도록, 현지 사역자들과 교회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 선교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앞으로 이루실 일들 또한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시편 126:3)

인도 신학교 현황

(as of 01/22/2026)

기수	졸업생 수	사역자 수	개척교회 수
1기	37	10	37
2기	18	9	33
3기	28	19	55
4기	10	6	14
6기	27	21	43
7기	20	15	27
8기	19		
Total	166	84	240

인도 건축 현황 (1/20/2026)

2012~2025년까지 완성	58개 교회 완성
2025년 완성	29개 교회
현재 진행 중	28개
건축 필요한 교회 수	42개

소망

<1분단상 149-2월호>
- 김대규 장로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다(시146:5). 그만큼 소망은 신앙을 가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이자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따라서 소망은 우리의 마음에 깊은 확신을 주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 근거하는 확고한 신뢰와 기대를 말하는 것이다.

구약에서 소망(히 תַּקְוָה: 틱바)은 줄, 끈, 기대, 희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때로는 모인 물(창1:10:바다)을 의미하기도 하며 생명의 원천을 뜻하는데 사용되었다. 라합이 창문에 내린 붉은 줄이 바로 “틱바” 였다(수2:18).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인내의 자세를 말한다.

신약에서는 소망(헬 ἐλπίς: 엘피스)은 믿음을 기반한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나라를 향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에 물든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는 것이다. 평신도 아굴라는 독실한 신자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복음중심의 삶을 살았다. 천막업을 하였기에 바울과 일하며 그를 도운 동역자이었다. 교회를 세우고, 해박한 성경의 식견으로 가르치고, 목숨도 아끼지 않는 헌신을 통해 끝까지 주만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엘피스”의 모습이다. 우리도 아굴라와 같은 평정을 가졌다는 것을 기억하자.

신앙생활에서 소망이 없다면 마치 키(방향타)가 없는 배와 같이 방향의식이 없이 표류하게 될 것이다. 고로 소망은 하나님과 형성되는 깊은 신뢰와 확신의 표현으로 성경에서는 소망을 “영혼의 닻”이라고 했다(히6:19).

닻은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바다 바닥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며 앞으로 전진케 한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닻은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믿음과 소망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소망은 어떠한 환란과 역경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신뢰하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실제적인 통로인 것이다(롬 8:24).

우리에게 소망은 추상적인 것이 아닌 실제적인 것이어야 한다. 현재형이자 미래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믿음의 형태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하나님과 한방향으로 동행하고 있는 것이 소망의 현재형이다. 세상에 동화되거나 휩쓸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세상을 하나님나라가 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를 확신하며 의롭고, 정결하며, 거룩한 삶으로 결국에는 영혼의 닻을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소망의 미래형이자 목표인 것이다. 이 소망은 여러 과정을 통하여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결국 승리를 가져오게 한다. 이를 우리는 산 소망이라고 한다(벧전1:3).

산 소망을 가진 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이에게는 말씀이 쌓여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사랑을 낳고, 사랑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한다. 우리 모두는 이에 속한 자이어야 한다.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디모데처럼, 아굴라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달려가 승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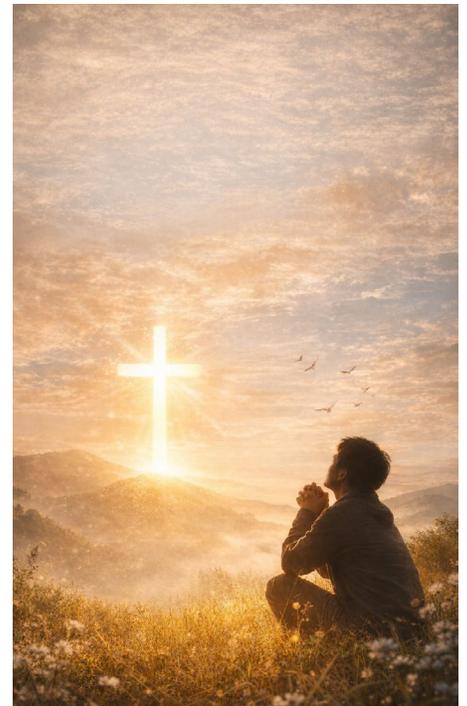
산 소망에 있는 우리가 진정 복음의 빛진 자라면 먼저 우리 스스로가 주 앞에 바로 서야 한다. 그리고 소망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산 소망을 심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말씀을 지켜야 한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 거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가까이 동행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리될 때 어떠한 풍랑에도 요동치 않는다. 말씀의 운동력과 생명력이 소망의 닻이 된다.

다음으로는 결실을 보지 않는 것이다. 죽은 소망인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세상의 유혹, 미련, 현란함이 있더라도 기뻐가려서는 아니 된다. 이는 시험을 예방하고, 세속적인 것을 버려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에 그렇다.

그 다음으로 사랑의 실천이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삶이 되어야 한다. 그 사랑의 삶을 많은 이에게 나누어 주어 산 소망을 갖게 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현존하는 하나님나라의 확장인 것이다.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이다. 고로 모든 것에 인내하며 산 소망의 성취를 위해 달려나가야 한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 정녕 우리의 장래는 확실하게 되고 우리의 산 소망은 끊어지지 아니하므로(잠23:17, 18) 새 하늘, 새 땅의 소망은 이루어 질 것이다.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파나마 김재한 / 그레이스 김

1. 사역을 함께 감당할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2. 매달 방문하는 단기 선교팀을 통해 선교사역지가 부흥하도록
3. 2월에 개장할 GYM을 통해 젊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도구로 사용되고 사역하실 신용길선교사님께 지혜와 총명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축복해 주시길.
4. 여러 선교사역들이 펼쳐 나가는데 기도와 물질이 채워져 주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5. 선교사와 동역자들의 성령 충만과 안전 그리고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도록



미국 기OO 선교사

1. 장학 학생들, 기숙사 학생들, 공동체 학생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2. 바투에 시작된 교회가 안정되고 재정적으로 위치적으로 적당한 예배 장소가 마련될 수 있도록
3. 공부방 학생들, 만나고 교제하는 M 및 타종교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4. 2026년 2월 19일-3월 19일(예정) 라마단 금식기간에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5. 영적 민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6. 2026년 7월 말 비자가 만료되는데 다음 비자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케냐 황광식 / 원지혜 선교사

1. 세계선교 마무리에 귀하게 쓰임 받는 선교사와 가정이 되도록
2. 고등학교 건축과 모든 절차, 준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3. 케냐 최고의 크리스천 명문학교로 세워지고 쓰임받도록
4. 올해에도 계속 건축될 교회들을 위해서
5. 현지 제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동역자를 붙여주시도록
6. 자녀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지혜를 주시도록

미국 이OO / 장OO 선교사

1.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행 중인 현지 대학과의 프로젝트가 주님의 뜻 안에서 잘 분별되고 은혜롭게 이어지도록
2. 2월 예정된 현지 방문 일정 가운데 모든 이동과 만남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혜가 있도록
3. 온라인 목회학 석사 과정을 시작하는 가운데 학업과 사역, 기도의 균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4. 4월 파송을 앞두고 필요한 준비와 행정 절차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5. 파송 준비와 학업을 위한 재정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채워지도록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C국 조OO / 윤OO 선교사

1. 새로 시작한 BAM사업이 속히 잘 정착될 수 있도록
2. 사업장의 안전과 순직한 장기 거주 허가 취득을 위해
3. 심신이 지치지 않고 평강과 감사로 잘 이겨내도록
4. 부부가 일심(一心)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5. 군 복무 중인 아들과 입대를 준비 중인 아들을 위해



키르기즈스탄 강형민 / 숙진 선교사

1. 아내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중에 있습니다. 재활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2. 막내 사라가 3월 14일 은혜교회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 매주 토요일마다 50여명의 노숙자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과 육의 양식을 제공하며 복음을 전하는 스태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선교부 광고

1. 진행 중인 선교사역

- **칠레 Grace 인카운터 및 비전트립**
이번 주에 진행되는 단기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세요.

2. 단기 선교 일정과 모집 안내

- **GMI 아시아 선교 컨퍼런스 (2/23-2/26)**
문의: 이희경 집사 (714-337-3091)
- **튀르키예 이란 난민 인카운터 2기 (3/12-3/17)**
S/L: 변재령 목사
디렉터: 김태형 집사
문의: 김규현 집사 (714-502-4399)
- **네팔 코이노니아 인카운터 (3/27-4/4)**
S/L: 권상욱 목사
리더(문의): 조제이스 집사 (213-905-0636)
총무: 최성욱
- **니카라과 인카운터 1기 (4/6-4/12)**
디렉터: 추금환 집사
문의: 문기훈 목사 (714-351-7212)
O/T: 2/9(월), VC108, 7PM

- **MEGL #16 Türkiye (4/14-4/17)**
S/L: 한기홍 목사
문의: 안성민 집사 (703-593-5949)
- **파라과이 상담국 선교 (4/21-4/24)**
S/L: 김영호, 김정원 목사
렉터: 김준규 장로 (714-336-8320)
- **인도네시아 인카운터 1기 & 개척선교 (4/23-5/3)**
S/L: 설성훈 목사
문의: 이병훈 집사 (714-353-1208)
T/M: 2/4(수) 108, 7PM
- **동유럽 Romania 현지교회 Grace Encount & VBS : 6/1-6/10**
문의: Steve 어 집사(714-318-8549)
O/T: 2/8, 웨딩채플, 6PM
- **케냐 인카운터 1기 (6/21-7/4)**
S/L: 설성훈 목사
문의: 로이김 집사(213-999-1737)
O/T: 2/17(화) 7pm, V/C119
- **칠레 AFA #1 Next Generation**
S/L: 안영식 목사
렉터: 장준영 장로
O/T: 3/17(화), 7pm, VC 108
문의: 차윤석 집사(714-334-2340)

3. 의료선교국 주일 상담

매주 주일 10:00- 11:15AM
문의: 의료선교국

4.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 및 쥬빌리 구국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WPC
문의: 현민정 목사 (714-732-2636)

5. 선교부 디보션 일정

매월 2, 4째주 주일 9:00 AM

6. 온라인 선교지 소식

WWW.YOUTUBE.COM/
@GMIMMISSION

WWW.FACEBOOK.COM/
GMIMMISSION

